

독서 자작1 해설

1번 문항

출제의도: 개념 간 관계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분노는 도덕적 감수성에 포함되고 도덕적 감수성은 친사회적 감정에 포함된다. 따라서 분노는 친사회적 감정 중 하나이다.

①: 2문단에 따르면 도덕적 감수성은 행동주의적 관찰을 통해 포착된다. 1문단에 따르면 자연적 실재와 비자연적 실재는 경험/관찰 여부로 구분된다. 그러므로 맥락을 고려할 때 도덕적 감수성은 관찰할 수 있는 자연적 실재이다.

③: 3문단에 따르면 감수성이 없는 대상은 입증의 대상이 아니다. 입증이란 도덕적 의무의 주체를 정당화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적절한 추론이다.

④: 3문단과 마지막 문단 간 정보의 결합을 요구한다. 의심에 빠진 이들은 비자연적 도덕적 실재가 배제된 상태에서 정당화 여부에 대해 잔여 불안 상태에 빠질 수 있다.

⑤: “반대하지 않을 것이다” 는 이중부정에 유의하여 선택지를 판단해야 한다.

2번 문항

출제의도: 필자의 견해를 이해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⑤

제시문에서 반복적으로 진술되었던 ‘도덕의 기능’ 관점에 부합하는 선택지이다.

- ①: 필자는 비자연적 실재의 비존재에 관해 논하지 않았다.
- ②: 인간은 감수성과 욕망을 모두 가진 존재이다.
- ③: 언어 능력과 상상력 간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.
- ④: 안심의 대상은 의심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사람, 즉 실천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이다.

3번 문항

출제의도: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리하게 나누었는지 평가한다.

정답: ②

A는 키처와 달리 논리적 공간을 한 층 더 추가하여 논증하고 있다. 진리 중 일부는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. 하지만 변경될 수 있는 진리의 일부분을 인정한다. 규범이 도전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유지 또는 변화이므로 A와 키처는 모두 진리가 갖는 규범성이 도전을 받았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.

- ①: 키처의 견해와 다른 부분이다.
- ③: B는 객관적 기준을 유일한 조건으로 간주하므로 도덕적 기능을 불필요하고 또한 충분하지도 않다고 볼 것이다.

④: B는 실재론 입장을 취하고 있다. 따라서 마지막 문단의 참인 것을 믿고 그 반대인 어떤 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. 키처는 이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표상이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반증한다. 따라서 표상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 둘은 견해를 달리한다.

⑤: A와 B 그리고 사실 제시문의 필자, 키처 모두 도덕이 갖는 권위, 즉 권위 없는 도덕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있다. 차이점이라면 권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독립적인 객관적 기준인지 도덕의 실천적 기능인지이다.